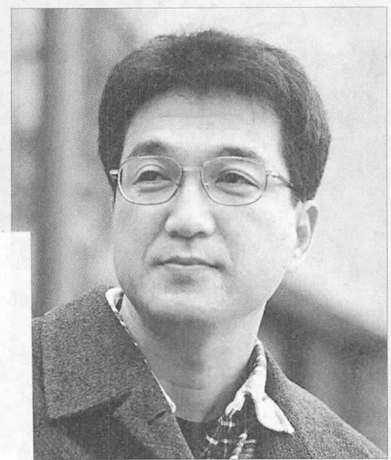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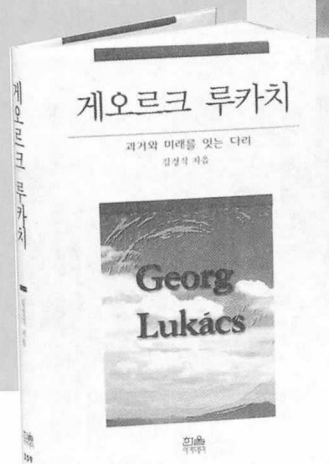


진보적 문예학의 관문 '루카치'

《게오르크 루카치》 펴낸 김경식씨

“루카치는 1930년대 카프문학가들부터 시작해 국내에서 꾸준히 읽혀온 이론가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루카치 사상에 관한 우리의 인식은 편협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1960년대의 루카치 사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죠. 따라서 이 책은 루카치를 좀더 종합적·복합적으로 읽고자 한 시도입니다.”



김경식씨

한울/A5신/312면/20,000원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문학이나 문화이론을 공부한 이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이론가가 한명 있었다. 《소설의 이론》과 《역사와 계급의식》을 쓴 마르크스주의 문예이론가인 루카치가 그 주인공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루카치는 ‘낡고 도식적인’ 이론가로 평가절하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갔다.

루카치의 현재적 의미 조명해

김경식씨(38, 연세대 독문과 강사)는 최근 펴낸 첫 책 《게오르크 루카치》(한울)에서 ‘잊혀진’ 루카치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다.

“루카치는 1930년대 카프문학가들부터 시작해 국내에서 꾸준히 읽혀온 이론가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루카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편협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1960년대의 루카치 사상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죠. 따라서 이 책은 루카치를 좀더 종합적·복합적으로 읽고자 한 시도입니다.”

그가 발견한 루카치의 새로운 모습은 ‘루카치의 탈스탈린주의적 면모’다. 특히 그는 1960년대에 나온 루카치의 텍스트를 동원해 루카치 이론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뒤집었다. 예컨대 반영론(인식론)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루카치의 리얼리즘론을 유물론적·역사적 존재론의 맥락에서 파악한다.

“루카치의 후기 저술부터 거꾸로 읽어가다 보면, 루카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받아

들여 루카치를 새롭게 조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은 루카치의 현재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밑거름이 불과하거든요.”

그는 책의 부제를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라고 붙였다. 좀더 역사적인 관점에서 루카치를 읽어보자는 의미다. 그에 따르면, 루카치의 사상에는 20세기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운동의 경험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다. 이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장차 미래를 전망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삶과 학문적 자세 가르쳐준 ‘인간’ 루카치

그가 루카치를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졸업무렵이었다. 군 제대 후 방황하던 그는 문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로 했다. 그러다 대학원생들과 같이 공부하게 된 것이 루카치였다. 그는 “독일 문학, 그 중에서도 진보적 문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루카치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대학원에서 루카치·브레히트 등 1930~40년대 독일 반파시즘 문학을 연구했다. 1960~70년대 동독과 소련의 미학이론을 연구하면서 루카치에 대한 비판을 접했지만, 루카치를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금석으로 삼았다. 오히려 1990년대 중반 동구권이 붕괴했을 때는 루카치의 시각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루카치는 인간적으로도 매력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1960년대 헝가리 봉기에 가담하면서부

터 그의 삶은 압박과 고난으로 점철됐지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역경을 이겨냈고, 87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철학적 사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 학자라면 자신의 철학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그는 루카치를 통해 학문하는 자세와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웠다. 특히 자신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한 제자를 가장 가까이 한 루카치의 ‘혁명적 관용’이 가슴깊이 다가왔다. 그는 이 책에서 ‘혁명적 관용’을 바라는 마음으로 스승과 선배들의 루카치에 대한 언급을 ‘혹독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루카치에 대한 논쟁을 좀더 활발하게 일으켜 보자는 심사였다.

“하지만,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네요. 학계에 만연해 있는 학맥·인맥 위주의 패거리주의를 타파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풍토를 형성해야만 학문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는 스스로 ‘얼치기’ 학자라고 겸손해한다. 하지만, 루카치에 대한 애정과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얼치기’가 아닌 듯 싶다.

“앞으로 소설론을 중심으로 루카치 문학론을 재구성해보고 싶어요. 그의 문학론을 벤야민·바흐첸 등의 학자와 조동일·백낙청 등의 이론과 비교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루카치의 사유를 기본축으로, 존재론과 미학 등으로 계속 사유를 확장해 나가는 게 제 학문의 목표입니다.” — 김정은 기자